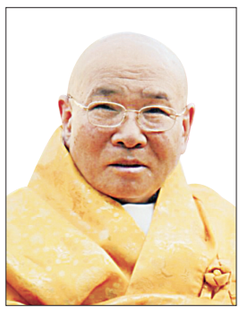
화합·상생의 희망이 가득하네

배려의 보살도를 실천합시다

만청 스님
대한불교대각종 종정대행



2024년 푸른 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검고 푸른 것은 우리의 기준일 뿐 진리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갑니다.

이런 부처님 이치 속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바로 흑백논리(黑白論理)의 아집(我執)을 씻어 버리는 것입니다. 남의 입장으로 돌아가 서로를 배려하는 자리이타(自利利他)가 바로 보살도(菩薩道)의 실천이 아닐까요.

너와 내가 다름이 없음을 깨닫고 함께 해나가면 우리의 삶 곳곳이 행복으로 가득찰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충실하고 이웃을 돌보는 만선동귀(萬善同歸)를 새해 실천 덕목(德目)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옳고 그르다와 분별과 성냄은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변 이웃들에게 배려의 한마디가 서로의 행복을 만듭니다. 한마디 좋은 말 속에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갑진년 새해에 모든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두루 하시길 지극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탐진치 삼독심 버리고 원융화합 갑진년 맞으며

진호 스님 대한불교원융종 총무원장



청룡의 기운이 널리 퍼지는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갑진년에는 모두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원융화합의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법화경 비유품에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번뇌가 마치 화염(火焰)이 타고 있는 집과 같다고 말씀하셨고, 탐, 진, 치 삼독심과 모든 집착을 놓고 거짓된 나로부터 깨어나 참나를 찾는 것이 삼계 화택에서 벗어나는 길이라 일러주셨습니다. 대한불교 원융종은 원융무애한 일원상의 진리를 스스로 체득하고 원통융화한 사회 실현을 위해 앞장서는 것을 종령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서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종단간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고 화합과 소통으로 상생을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아만과 아상을 없애고 하심하는 마음으로 어두운 세상이 광명의 빛으로 밝아지기를 두손 모아 기원합니다.

하심으로 중생 등불 됩시다

목탁 스님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 대승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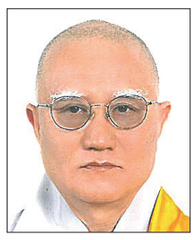
원력과 노력의 결실을 맺을 뜻깊고 보람된 축복의 새해입니다.

새 해에는 번지르한 미사여구보다 몸소 실천에 옮기는 불제자가 됩시다.

실천하는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부처님 세상을 이루기 위해선 수천마디의 말보다 단 한번이라도 실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전세계 각국 불교들이 모두 모여 하나되는 노력과 이해심을 발휘하여 포용력으로 서로가 서로를 감싸는 마음과 행이 절실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좌부불교와 대승불교 그리고 밀교와의 두터운 벽을 허무는 고통과 시련을 뛰어 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지구촌에 불교의 위상을 드높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더욱 분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부대중이 한마음이 되어 다시한번 자중하고 겸손하며 하심으로 중생들의 등불이 됩시다. 앞에 계신 스님이 바로 세계불교를 이끌 지도자이십니다.

지혜의 등불을 밝힙시다

혜일 스님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깨달음과 지혜를 상징하는 청룡의 해를 맞이하여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 속에 부처님의 지혜 등불이 환히 밝혀지기를 축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중생 실유불성(一切衆生 悉有佛性)'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계, 정, 혜 삼학을 잘 닦아 탐욕과 어리석음과 성냄에 가려진 무명을 밝히면 모두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들이 부처의 성품을 지닌 존귀한 존재임을 일깨우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익혀서 깨달음의 지혜를 증득하여야 하겠습니다. 갑진년 새해에는 모두 청룡의 기운을 받아 마음 속에 불성의 등불을 환히 밝히고 성불하기길 축원합니다.

선악이 함께 공한 곳이니라

혜승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정



善惡 兩 俱空 卽往 極樂國
覺悟善惡之本因
不是善不是惡故
此是善惡俱空處

착한 행은 천당에 올라가고 악한 행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느니라. 그러나 선과 악이 함께 공(空)하였다면 곧 극락세계로 곧바로 가리라. 선과 악의 근본 원인을 깨달으면 착한 것도 아니요, 악한 것도 아니니, 이 것이 곧 선과 악이 함께 공(空)한 곳이니라.

一心欲見佛 不自惜身命)

관효 스님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일심으로 부처님을 친견하고자 한다면 신명을 아끼지 말라. - 묘법연화경 여래수량품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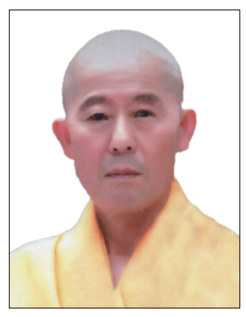
갑진년 새해에는 불자들이 바른 분별력을 발휘하길 기원하며 상서로운 용의 해를 맞이합시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이 참된 자아를 찾아서 세상을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몸소 수행하는 모습, 보살행을 행하는 선한 모습으로 중생들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을 행하여 부처님 법을 전해서 불국정토 건설에 정진하는 불자됩시다. 새해 불자 여러분의 각 가정에 부처님 가피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공존 공영의 시대를 열어가자

월인 스님
종정협의회 회장
(승가종 종정)



희망찬 갑진년 새해에는 지역, 세대,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온 인류가 공존 공영의 안목으로 대화합의 정신 하에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 많은 이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갈등과 각자의 이해에 따른 갈등으로 사회는 점점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불자들은 참다운 인간상과 이상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각자가 본연의 자리에 돌아가 행과 말을 합시다. 진정으로 어디로 가야 할 지를 성찰하고 본래의 자리에서 결코 둘이 아님을 깨쳐야 할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세계, 모두가 고통없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새해에는 많은 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함께 정진해 갑시다.

동체대비 실천, 무량지혜 가득하길

화응 스님 대한불교화엄종 총무원장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희망과 기대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희망의 청룡이 승천한다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과 불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한불교화엄종은 원효대사를 종조로 가르침의 요체인 심법(心法)을 내세워 중생구제의 서원을 실천하고 있는 종단입니다. 전쟁 방지와 지구환경 보존은 당장 해결해야 할 인류의 시급한 과제로 다가섰습니다. 불기 2568년 갑진년 한 해는 우리 불교가 동체대비의 넓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전쟁이 없는 세상, 재해가 없는 자연, 고통받지 않는 지구촌 건설을 향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무량한 지혜와 복덕이 가득하시길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하루 하루 행복한 나날

해불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푸른 룡의 기운이 서리는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계묘년의 마지막 날과 갑진년의 첫 날은 전혀 다른 날일까요?

하루 하루가 다른 듯 같으니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입니다. 마음이 여여한 이에게는 하루 하루가 즐거움이자 행복입니다. 분별을 떠난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이 곧 행복이니 함께 정진합시다.

새해에는 보다 많은 이들에게 이러한 행복을 전하기 위하여 불자들이 서로 노력합시다. 마음 하나 일으켜 주변을 돌아보면 그 것이 바로 행복이고, 행복한 마음이 건강을 불러 옵니다.

한국사회는 2024년 많은 변곡점이 있을 것입니다.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고, 세대갈등, 지역갈등이 사라지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갑진년 새해 각 가정에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비는 무량의 선근(善根)을 낳는다

伊藤 眞聰
眞如苑 원주 眞澄寺
수좌 대승정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지금, 세계 각 곳에서 발생하는 전쟁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위기, 질병, 빈곤등이 세계를 뒤덮는 괴로움과 슬픔...돌이켜보면 신뇨엔 개조·영조는 1967년 제 3차 중동전쟁 직후에 유럽과 이스라엘을 방문 당시 "굴하지 않는 마음 하나로 오직 평화를 위해 나아간다"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대승열반경에 "자비는 분노를 가라앉힌다. 자비심을 갖고 행하면 무량의 선근을 낳는다"고 설하시듯, 이럴 때일수록 악인악과(惡因惡果)의 고리를 끊고 자비행을 넓혀갑시다.

종교를 구하는 우리들은 결코 절망하지 말고 선(善)의 힘을 결속하여 화락(和樂)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마음 일구는 새해를 기원합니다

명안 스님 한국불교여래종 총무원장



우리의 마음은 머물지 않고 물처럼 쉼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물 같은 마음에 끄달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마음이 우리의 참마음이 아님을 깨닫고 우리가 지닌 본성, 여래불성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갑진년에는 내 안의 마음을 돌아보고 정진으로 함께 일궈 나갑시다. 또한 함께 힘들고 아파하는 주변의 이웃들을 살펴 모두가 하나 되어 밝게 미소지을 수 있도록 합시다. 갑진년 새해 부처님의 크신 광명이 두루 나투고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화합하면 모두가 부처다

송천 스님
대한불교금강종 종정



一心淸淨 萬心淸淨
圓融會通 自他成佛

친애하는 불자 여러분, 갑진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한 마음 청정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청정하며, 서로 다른 쟁론을 화합하여 하나로 소통하게 되면, 모두가 한없는 행복한 부처를 이룬다."

우리는 고통과 시련을 잘 극복하고 비상(飛上)과 전진(前進)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만 됩니다.

다사다난했던 계묘년이 지나고 이제 새해 푸른 용이 꿈틀거리며 하늘로 비상, 정진하는 갑진년이 되었습니다.

경제, 안보,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우뚝 서는 선진국이 되길 진심으로 빕니다.

친애하는 불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세계일화(世界一花)의 정신으로 봉사와 대승(大乘)의 마음으로 자리이타(自利利他)하여 모두 성불합시다.